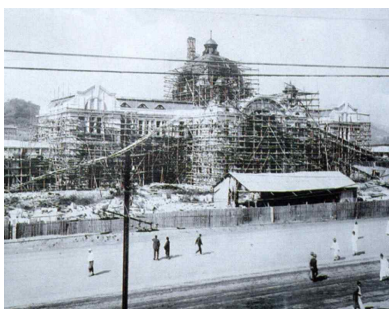


1. 지역 중심의 철도역사

과거로부터 공공 건축물은 그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중심이면서 상징이었다. 근대 이후 철도역사는 대량 수송을 통해 산업화 및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도시성장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1900년 처음 문을 연 서울역은 우리나라 교통사에 큰 기여를 해왔고 광역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서울역으로부터 시작 된 전차 노선의 부설은 새로운 주거지 및 시가지 확장을 가져와 서울 및 수도권지역 발전 및 근대화의 주춧돌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민자역사 시대가 열리고부터는 역 주변의 상권 및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고,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서울역은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 거점역이 되었다.

< 서울역사의 변화 >



1900년대 초반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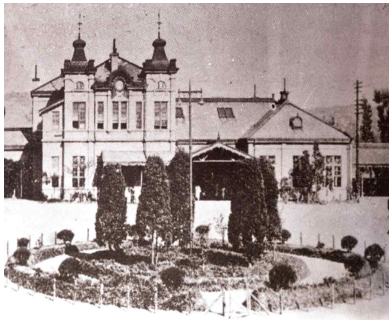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인 대전의 변화와 발전도 대전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대전은 ‘아무것도 없는 넓은 밭’이라는 뜻의 ‘한밭’으로 불릴만큼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다. 1900년대 초반 대전역이 건설되면서 역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

했고,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 되면서 철도교통의 중심으로 급부상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던 대전역은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소실된 철도역사 중 가장 먼저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대전은 전쟁 직후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 대전역사의 변화 >



1900년대 초반



1960년대



현재

현대 철도역사는 지역과 지역, 지방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이 되었고 주변 역세권도 이전과는 다른 복합적인 공간·용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철도역사는 그 지역의 상징적인 랜드마크(Landmark)가 되어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지역 도심재생이나 지역발전도 철도역사로부터 뻗어나가게 되었다. 물류와 여객 수송이라는 기능적 역할을 넘어 근대 도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여객이 단순히 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체류하며 활동하는 지역 커뮤니티(Community)로서 철도역사 그 자체가 지역의 명소가 되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어 나아가고 있다. 최근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하여 건설 중인 역사 중 철도역사가 그 지역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고, 지역 도심재생과 지역발전이 철도역사로부터 뻗어나가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2. 과거의 기억과 현재를 담은 전주역사

전주는 한국 남서부의 중심도시로서 한옥마을, 풍남문, 전동 성당 등 한국의 중·근대사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장소와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이 중심에 있는 전주역은 1981년에 신축되었으며 고풍스런 지붕을 얹은 한옥 형태로, 전주의 관문으로서 42년 동안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KTX 운행 이후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노후한 역사는 예전 모습 그대로 있어 늘어난 수요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 전주역사의 변화 >



1980년대



현재

이용객과 지역사회로부터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관계 기관과 다년간의 협의 끝에 총사업비를 확보하여 2019년 5월 국제 설계공모(Jeonju Station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설계공모 포스터



심사 진행과정



전주역사(조감도)

Organization

Contemporary Botanic Station은 구 역사에 있던 기능적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민들이 머무르기 위한 문화적 프로그램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거인과 연계되어 자연이 건물의 일부가 되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무너뜨려 더욱더 풍부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모든 공간은 서로 연계되는 각각의 정원들과 함께 이용된다.

Extensible Program Garden

정원들은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분리되어 별개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Program Proposal

전주 역사와 주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주역이 단순히 거쳐 가는 통선이 아닌 목적을 가진 사설로 기능하고, 전주 시민들이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원이나 커피숍, 아니라 트레킹 라이브러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창작 예술놀이터 등 문화적, 예술적 체험을 위한 공간을 제안하여 전주의 자연·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전주역사 실내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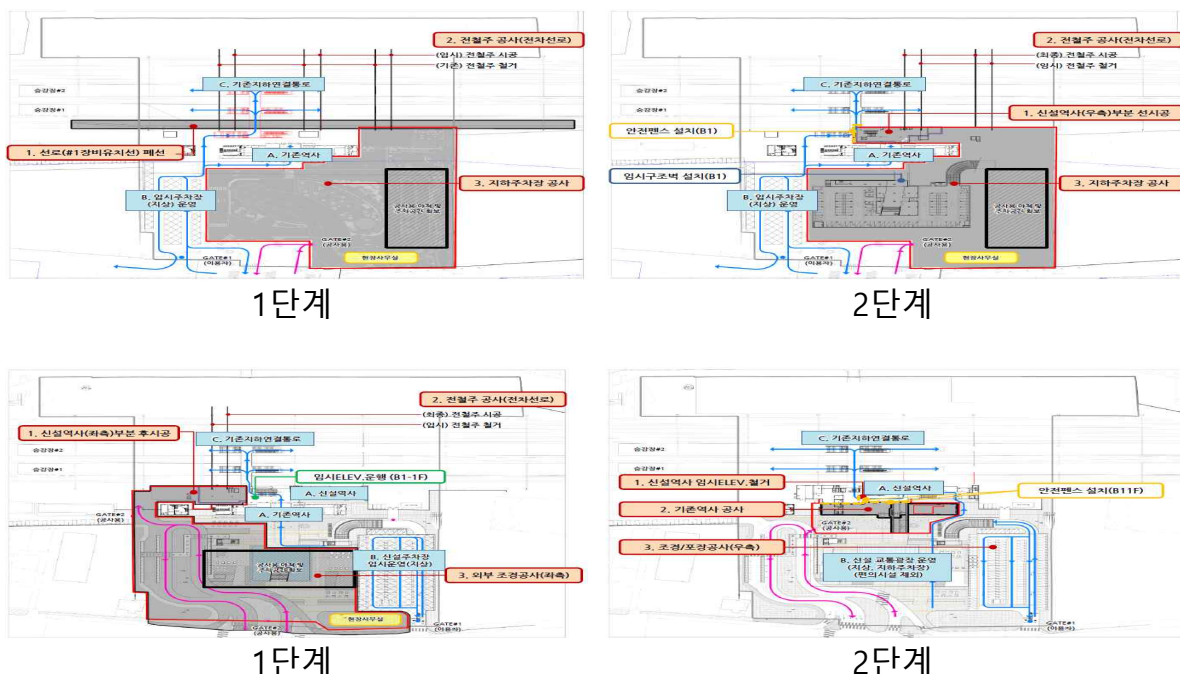
* Borrowed Scenery, 풍경이 되는 건축 : 과거와 미래의 공존(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당선작은 역사 내에 전주의 생태를 고려한 내부 정원을 조성하여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기존 전주 역사의 전통 한옥을 보존하여 구역사와 신역사가 하나의 풍경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신역사는 정원을 조성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변화하는 색과 분위기를 연출하여 전주의 한옥도시, 정원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

또한, 역 광장 하부에 주차장을 구상하여 철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광장에는 '빛의뿔'과 같은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전주를 찾은 관광객과 전주 시민이 쉬어갈 수 있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게 된다.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짓는게 아닌, 과거를 보존하며 과거와 미래가 조화되는 새로운 방식의 건물인 셈이다. 철도라는 물리적 요소로 단절되어 있던 도시가 전주역에 의해 새로운 문화·생태적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다. 뿌리 깊은 전통 유산, 철도 발전을 통한 산업화, 그리고 미래 도시 전주의 현대적 풍경을 통합하는 새로운 시민 공간이 창출되는 것이다.

공사 과정에서도 지역주민과 이용객이 편리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시공계획을 통하여 안전한 역사를 건설할 예정이다.

< 단계별 시공계획 >





전면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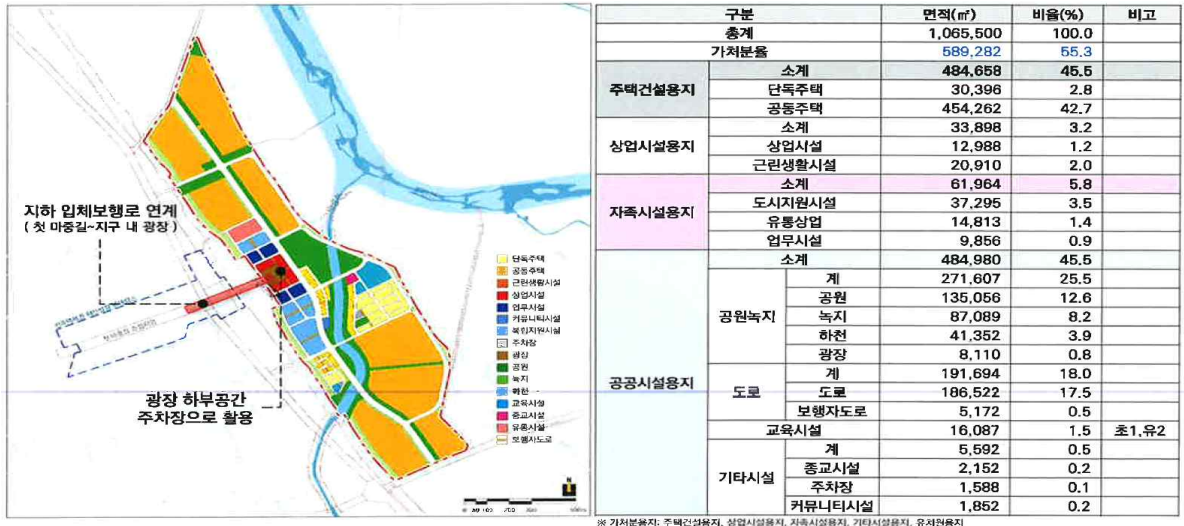
빛의못

도시조직 내 새로운 녹색 심장부 역할을 수행할 전주역이 준공 되면 전주의 명물로써 새로운 관광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심 재생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풍요로운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전주역은 자연환경과 지역 전통을 아우르는 전주의 첫 관문이자,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에 맞물려 전주시에서도 전주역 인근 역세권 개발을 시작했다. 전주역 인근 옛 농심부지에 버스 복합환승장을 포함한 ‘혁신 관광 소셜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주역 주변 교통구조 개선과 함께 전주역을 중심으로 타 지역과의 광역교통 연계기능을 확보하여 광역 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 선상연결 통로를 통해 역사 전·후면 지역을 연결하여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후면 지역 역세권개발을 통해 도심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전주시 혁신관광 소셜 플랫폼



전주역 후면 역세권 개발계획

전주역은 철도역사의 국제설계공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역사로 건설 될 것이다. 전주역은 단순히 거쳐가는 동선이 아닌 목적을 가진 시설 그 자체로 자리잡게 될 것이고, 역세권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에서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전주의 자연·문화·예술 네트워크(Network)가 될 것이다.

3. 지역과 함께 변화하는 영주 및 충주역사

철도역은 과거의 기록이며 미래를 향한 현재의 방향이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지역이나 도시를 방문했을 때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생활을 담고 있는 철도역은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영주역과 충주역은 반백년에 가까운 긴 역사의 시간 동안 각 지역의 관문이자 지역 발전을 함께 해왔다. 그러나 노후화 된 시설과 비좁은 공간, 그리고 내진설계 미반영 등 역사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적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신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열망이 지속 되어왔다. 그러나 각 역사들이 포함된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영주역)과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충주역)의 기본계획이 수립 될 당시 신축이 아닌 기존역 활용으로 반영되어 신축 역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열망이 묻혀지는 듯 했다.

< 영주역사의 변화 >



1980년대



신축 이전

< 충주역사의 변화 >



1980년대



신축 이전

공단은 연계노선 사업확정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와 역사건물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 안전 및 여객 편의성 확보를 위해 다년간에 걸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KDI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역사 신축이라는 큰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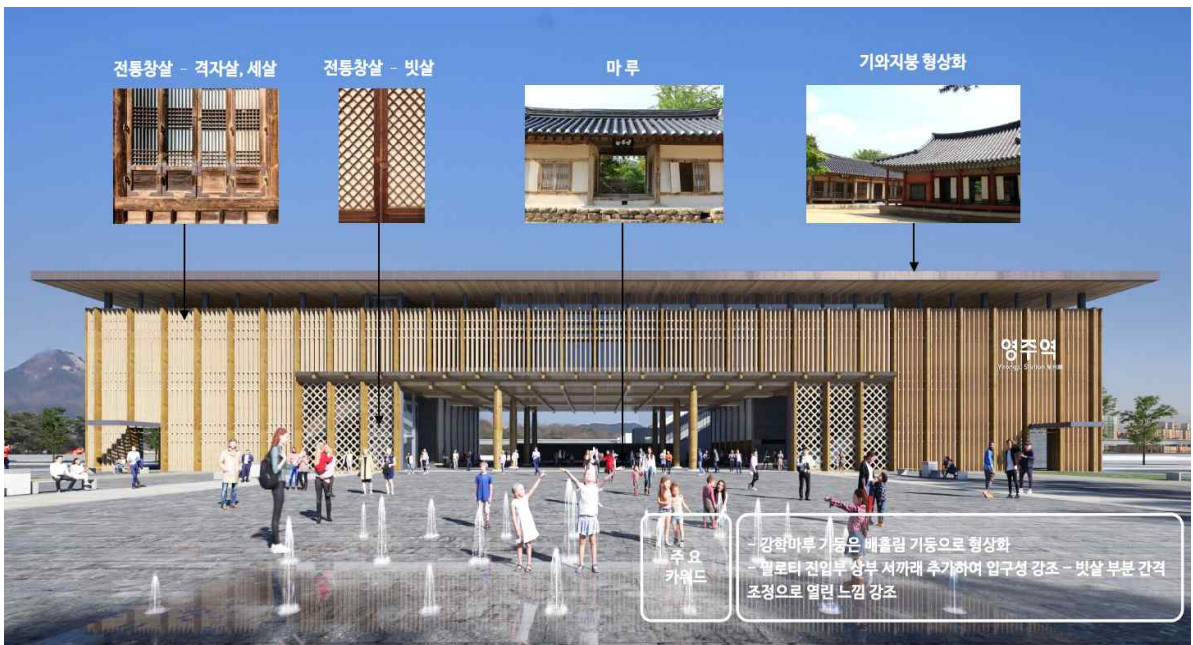
가. 도심재생의 선두에 선 영주역사

새롭게 지어지는 영주역사는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영주시의 역사(歷史)와 문화, 전통건축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 시민의 쉼터이자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다.



영주역사(조감도)

영주역사는 국가철도공단이 영주시, 지역 공공건축가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친 디자인 의견수렴을 거쳐 영주시 상징 건축물인 소수 서원과 부석사, 소백산, 선비정신 등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 하였다. 지역사회와 함께 영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심재생 중심의 역사가 탄생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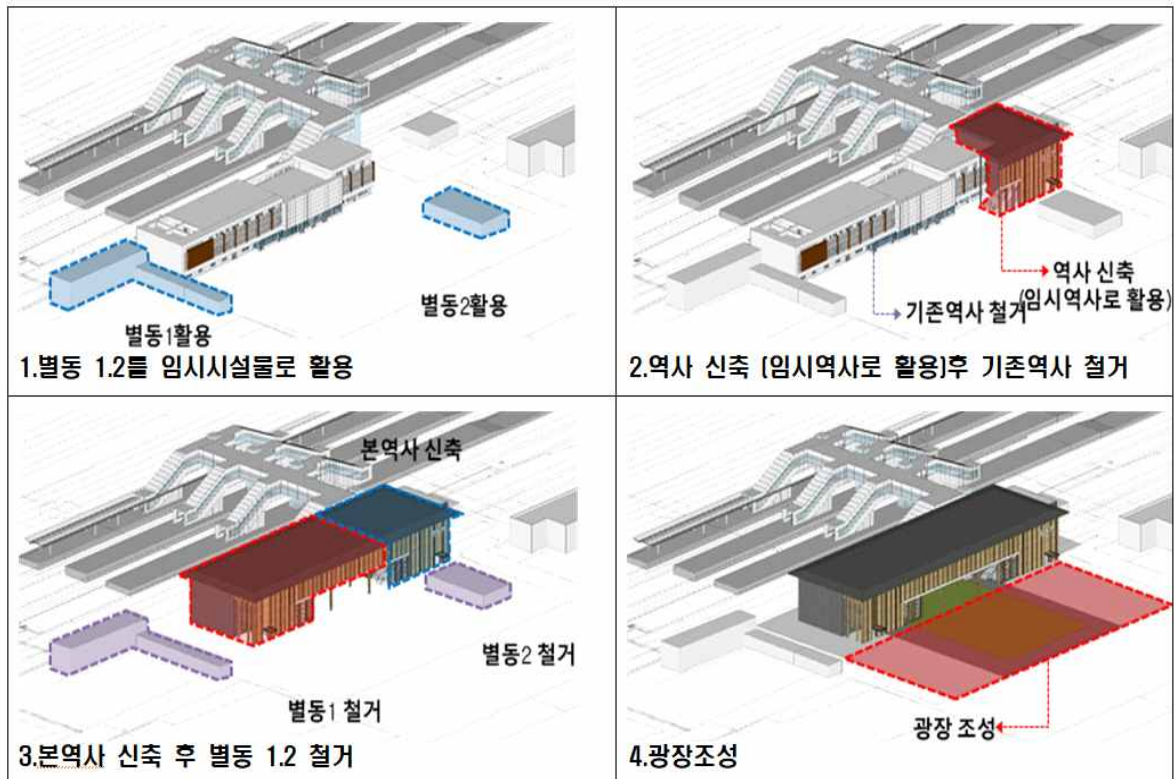
디자인 컨셉

역사 1층의 강학마당¹⁾과 역사 앞 광장은 공간을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설계하였고, 이러한 개방성과 가변성은 역사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한 곳이 아니라 흥미로운 곳이 되어 역사 그 자체가 목적지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영주역도 전주역과 마찬가지로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이용객이 편리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시공계획을 통하여 안전한 역사를 건설할 것이다.

영주역사는 2년여 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였고 현재 광장 및 진입도로 공사 등을 제외한 역사 본체 건물 공사를 완료하여 2023년 9월 사용개시 하였다.

< 단계별 시공계획 >



* 별동1 : 철도사법경찰대, 노조지방본부, 철우회 등

* 별동2 : 열차승무사업소, 열차노조지부

1) 강학마당(講學麻當) : 과거 학문을 닦고 연구하던 공간



영주역사 신축공사 현황

영주시에서도 이러한 우리 공단의 움직임에 발맞춰 영주역을 지역 거점역으로 만들기 위해 역 앞 교통환경 개선, 연계교통 시스템 정비, 도심재생사업 시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영주역사의 신축으로 영주시민들은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과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의 사업 시행 시 지역 거점역으로서 도심 재생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나. 지역개발의 주춧돌 충주역사

충주역은 가야금의 선율을 담은 탄금대²⁾를 디자인 컨셉(Concept)으로 잡아 충주역이 충주시의 문화와 역사가 울려 퍼지는 공명통이 될 수 있도록 건설 될 예정이다.



충주역사(조감도)

2) 탄금대(彈琴臺) :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 중 하나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장소로 충주시의 대표적 명소

충주역사가 원도심 재생 및 지역개발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충주시, 공공 건축가 등이 3차에 걸친 디자인 의견 수렴을 거쳐 설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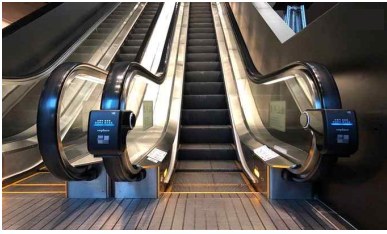
충주역사는 충주 탄금대의 가야금을 디자인 모티브로 디자인 하였으며 지상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여 광장 공간이 확장 되어 역사 내·외부에 관광객과 시민들의 쉼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구축하였다.

또한 충주역사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언택트(Untact) 역사 설계가 최초 반영되었다. 밀집·밀폐·밀접의 건축적 요소를 지양 하고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언택트 역사 공간 건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승·하차 동선 분리, 비접촉식 스마트 게이트 및 엘리베이터, 자동살균 에스컬레이터 등의 기술이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은 향후 개통되는 타사업에도 확대 적용 예정이다.



디자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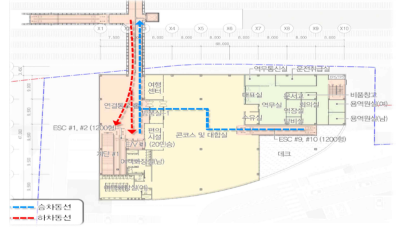
< 언택트 역사 설계 >



에스컬레이터 살균기



비접촉식 엘리베이터 버튼



승·하차 동선 분리

충주역사는 2021년 12월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구간 개통 당시 여객 취급을 위한 1단계 개통을 하였고, 본역사 신축공사는 충주 시에서 시행하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여객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며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공사를 시행 할 예정이다.

단절되어 있던 역사 전·후면 지역은 선상연결통로 건설이 신호탄이 되어 하나로 연결될 것이고, 신축된 충주역사는 후면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물려 충주시 도심재생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1단계 개통 필수시설	현장 전경
1단계 (21.12.)	<p>선상연결통로 및 승강장출지붕 신설 기능시설(통신실 등) 신축 기존역사</p>	
2단계 (25.7)	1. 임시역사 신축	2. 임시역사 이전 및 기존역사 철거
	<p>선상연결통로 및 승강장출지붕 기능시설(영구) 임시역사 신축 기존역사</p>	<p>선상연결통로 및 승강장출지붕 기능시설(영구) 임시역사 기존역사 철거</p>
	3. 충주역사 완공	4. 충주역사 완공 및 임시역사 철거
	<p>선상연결통로 및 승강장출지붕 기능시설(영구) 신축역사 임시역사</p>	<p>선상연결통로 및 승강장출지붕 기능시설(영구) 신축역사 임시역사 철거</p>



충주역사 후면지역 역세권 개발계획

중부내륙선은 중앙선에 이어 두 번째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이 투입되는 노선으로 동서축으로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충주가 고속철도망 시대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라 수도권발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철도역사의 변화 방향

전주역사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게 아닌, 과거를 보존하며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영주역사와 충주역사는 그 지역의 상징적 전통요소들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기존 역사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아름다운 역사로 변화 시켰다.

이렇게 건설된 역사들은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도심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그 지역의 광역 교통 랜드마크로서 도시발전의 중추적 존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들이 많이 탄생하길 바라며 향후에 건설될 역사들은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